N E W S L E T T E R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뉴스레터〕

서기2000년 4월 개학예정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APU

May 1999 vol.5

CONTENTS

p1 ● 사카모토 학장예정자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예방
p2 ● INTERVIEW KEE pookong소장 〈앞으로의 아시아태평양연구〉
p4 ● 한 · 일 고교교육교류포럼/국내협정고교현황
p5 ● 〈한 · 일 고교생APEC큐슈〉개최/〈제2회 고교생아시아태평양현상논문〉공모/제1차 일본어 어학연수
p6 ● Tommy Thong-Bee KOH교수로부터 APU에 보내는 메시지 / 해외사무소 소식 〈태국, 인도편〉
p7 ● 완성을 앞둔 APU캠퍼스 상량식 거행
p8 ● RITSUMEIKAN TOPICS

A JOURNAL REPORTING PROGRESS OF RITSUMEIKAN ASIS PACIFIC UNIVERSITY

사카모토 APU학장예정자
김 덕중 교육부장관과 김 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을 예방

99년 7월 6일(화)에 사카모토(坂本 和一) APU학장예정자는 우리 나라의 김덕중 교육부장관과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카모토 학장예정자는 APU의 설립취지, 현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두 장관은 "학생의 반수를 세계 50개국에서의 유학생으로 구성한다는 APU의 구상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전적으로 지원하고 싶다. 21세기에는 아시아 각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교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일본에 세워지는 대학이긴 하지만 아시아지역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 주길 바라며, 그를 위해 우리들도 응원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교육부 김덕중 장관(오른쪽 첫번째)을 예방하여 환담하고 있는 사카모토 APU학장예정자(중간)

▲ 행정자치부 김기재(오른쪽에서 두번째)장관을 예방, APU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카모토 APU학장예정자(왼쪽 첫번째)와 APU한국사무소 김정현(오른쪽 첫번째)소장

INTERVIEW

KEE Pookong

紀 宇坤

빅토리아공과대학교수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

KEE Pookong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점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하와이(이스트 · 웨스트 · 센터)를 무대로 이동교류론을 심리학 · 사회학 · 정책학의 시점에서 실천적으로 연구하는 국제적인 연구자.

앞으로의 아시

-오늘은 빅토리아공과대학(오스트레일리아)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의 소장이신 KEE Pookong교수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민과 다문화사회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KEE 오늘, 이렇게 아시아태평양의 발전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의 연구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며, 읽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두서가 없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뉴스레터에 많은 분들의 견해가 소개되어, 다양한 연구노력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를 해명하는데 공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남부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온 양친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초등교육을 화교계 학교에서 받고, 영어로 교육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데레도대학에서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으로 Honour학위(우등학위)를 취득한 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 장학금을 받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경력소개로 저의 시점, 학문의 선택, 캐리어 그리고 직업과 주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요인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때 받은 중국어와 영어교육은 그 당시로서는 중요한 차이점이었던 영어로 교육을 받은 화교와 중국어로 교육을 받은 화교간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화교의 가치관과 행동을 이분화했고, 그 영향은 아직도 양국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차이는 중국적 가치나 아시아적 가치, 정치적 큰 뜻에 대한 로열티와 대조적으로, 서양화나 영국적인 것에 동일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냉전기에 있어서 전자는 중국대륙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의 동일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레시아어가 모국어로서 적극적으로 장려되면, 이러한 2언어, 2문화적인 자산은 말레시아어 학습에 의해서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중국어와 인도계 언어교육에 대해서 냉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의 말레시아어, 중국어, 인도계 언어와 문화 및 유럽적 전통과의 관계는, 다른 문화적 생활에 대한 저의 관심과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후에 다문화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발전을 위해서 강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 선생님의 연구는 어떠한 테마에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KEE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한 일은 쿠아라룬푸루 근처에 있는 교호원(소년원)의 카운슬러로서, 가정, 학교나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소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후, 당시 싱가포르대학 부키티마 캠퍼스에 있는 고등교육개발지역연구소라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교육부 장관의 산하기관에서 1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지역개발협력연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어, 동남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과의 영원한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구의 관심은 스터디 서비스 활동이라는 대학생으로 하여금 농촌지역의 일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그 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에서도 일반화되었으며, 또 중국의 **不放運動**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지방의 농민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운동과도 유사했습니다. 저의 연구의 촛점은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다행히도 쿠알라룬푸르나 페난의 농촌개발이나 그 밖의 국가발전에 관심이 있는 젊은 말에이시아인 학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관한 연구는 말레이사아계, 중국계, 인도계 커뮤니티의 출생패턴에 관한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취득한 심리학 박사논문 테마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장학금과 포드재단, 록펠러재단의 인구개발정책계획의 지원을 받아서 말레이사아에 있는 3개의 주요 에스닉 그룹간의 출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행동, 특히 가족규모에 관한 두드러진 차이를 가져오게 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조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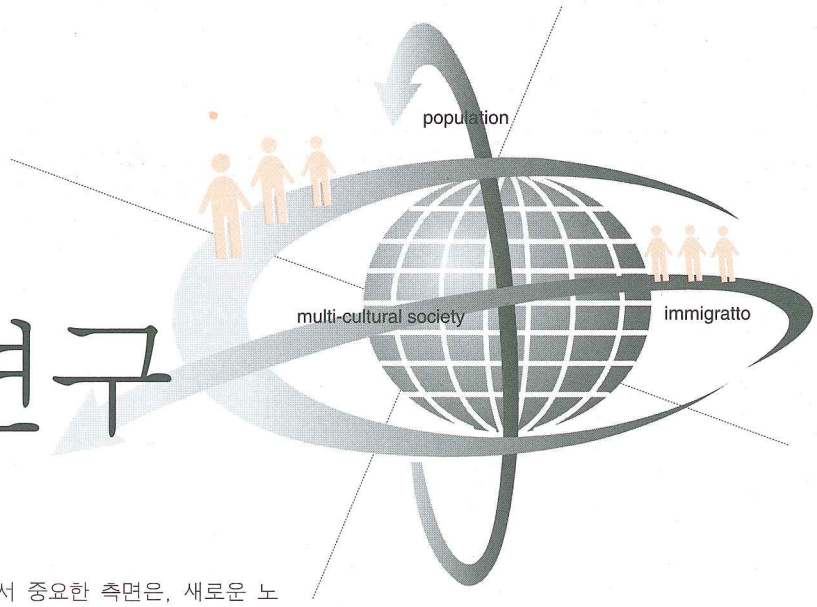
말레이시아반도의 도시와 농촌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수준, 소득, 직업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말레이시아인의 계속되는 높은 출생률과 화교의 낮은 출생률을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 연구결과는 호놀룰루의 동서인구연구소의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인구통계학자나 미시간대학과 오스트리아 국립대학의 학자가 조직한 〈한 국가를 초월한 가치 및 아동의 비용에 관한 프로젝트〉아래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 선생님이 하와이에서 인구문제연구에 종사하실 때, 어떠한 과제를 중요시했습니까?

KEE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마친 후, 1980년 하와이에 있는 동서인구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연구교육센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스탠포드대학 법학부교수의 이사장 취임과, 일본에서 출생하여 중국어능력을 갖춘 한국인이 인구센터소장에 취임한 것은, 이 연구소가 중국과 많은 중요한 연구협력, 특히 인구문제분야에서 협력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워싱턴 새 정부는 국내외에서 친출생주의나 반인구억제정책을 펴나가는 동시에, 곧바로 인구문제연구소를 위한 자금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미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말레이사아에서도 마하티르 정권 하에 인구가 많은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는 의견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한국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인구정책전환을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몇몇 나라들의 가족계획이나 인구교육기관의 개명을 초래하고, 에이즈 등과 같은 다른 세계적인 문제가 새로운 인구연구의

아태평양연구



미개척 영역으로, 출생감소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체류는 대단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스트웨스트센터에서 저는 다행히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사회연구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많은 미국인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온 연구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태평양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이문화간 이해와 평화에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풍경의 웅대함, 다양한 선조가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문화적 다양성이 만들어 내는 활기는 이문화간 학습과 국제사회이해와 교류의 촉지에 있어서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학습경험이, 벳푸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출현한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은 다문화 국제교육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만, 어떤 배경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KEE 1981년 이민의 형태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돌아와, 하와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오스트레일리아 다문화연구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방정부기관이며, 저에게는 적합한 일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한 5년간은, 정책중심의 연구에 연방, 주, 지방정부 그리고 엥글로 · 켈틱적인 가치관의 약체화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압력단체와의 절충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대단히 도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다문화교육, 다문화방송 그리고 신규도착 이민을 위한 직업문제, 주택, 사법원조, 고령자 · 아동 · 여성에 대한 원조를 포함한 도착 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많은 연구계획에 종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정권교체가 있었고, 연구소의 일에 있어서는 다문화정책에 다른 접근방법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측면은, 새로운 노동당 정권이 소수파에 대하여 국가의 자원에 대한 Access와 공평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기회의 평등에 대신하는 결과의 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은, 각기 다른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한 차별수정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 징조를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다문화문제연구소에서, 다른 정책접근과 다른 정치과제의 양립이라는 어려움은, 새롭게 선출된 노동당정권이 이전의 자유당 · 국민당정권이 설치한 이 연구소를 폐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멜버른대학의 응용경제사회연구소에 소속된 후, 1989년에 옮긴 다른 국가의 연구기관인 이민과 인구문제연구소가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은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연구소는 노동당정권에 의해서 이민에 관한 경제, 사회, 환경, 국제적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연구성과는 일관해서 이민의 장기적인 경제이익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민이 실업을 악화시켜 경기 후퇴 시에 사회불안을 일으킨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존 · 하워드 현 수상이 인솔하는 자민당 · 국민당정권에 의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학 · 경제학에 관한 연구와 응용의 모순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 산업계, 다른 기득권익으로부터의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연구의 취약성을 입증하여,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는 사회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넓게 받아들여지고, 증명 가능한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데이터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연구가 정책과 계획의 공식화와 평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자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지식인의 성실성과 전문가정신의 필요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는 빅토리아공과대학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의 요직에 계십니다만, 그곳에서의 연구동향과, 교수님께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테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KEE 빅토리아공과대학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의 과거 5년간은, 특히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은, 많은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관심과 함께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경험과 이 지역에서의 비교적 광범위한 직업경험을 활용하여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장래 아시아태평양의 성장과 교류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 관광, 국제학생의 이동 등 국제간의 사람의 이동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학생을 받아들이는 쪽과 목적국에 대한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동의 원인과 과정의 연구는, 지역통합과 상호의존의 이해에 직접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전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근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서 위탁받은 컨설턴트 ·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의 발전하는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시아태평양 컴뮤니티의 성장, 다양화와 통합,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경제적으로 공평한 사회로서의 오스트레일리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이민으로부터 발생한 지구적인 가족, 사회, 문화, 경제의 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중국인의 이동, 발전하는 중국인의 아이덴티티,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활기에 찬 중국인 문화사회와 태평양연안의 다문화 국가들과 중국과의 교착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들 연구는, 특히 컴뮤니티와 국가를 초월한 비교관계에 대한 분야는,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이나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세계의 지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타 교육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은 선생님의 아시아태평양학에 관한 최신의 연구내용, 특히 이민과 다문화사회연구에 대하여 귀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 일 고교교육교류포럼

Forum in Oita

KOREA JAPAN

▲ 교류 포럼에 참가한 한국관계자와 APU관계자들이 APU캠퍼스 현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99년 1월 22일(금)부터 24일(일)에 걸쳐서 ≪한 · 일 고교교육교류포럼≫이 오이타 · 벳푸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2일(금)은 한국에서 APU와 협정을 맺은 고교 69개교 중 51개교 교장, 관계선생 및 학생, 학부모님들 총 71명과 오이타현의 20개교 교장 등이 참석하여, 경복고 최태상 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7개 고교 교장(한국:대원외교 이종영 교장, 경남고 김봉길 교장, 경희고 여성구 교장, 일본:立命館高 加藤 교장, 大分高 小山 교장, 인도네시아 木村 소장)선생님들로부터 발언을 하는 등, 오이타 · 벳푸시 관계자들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날 23일(토)에는 시찰한 후 24일(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APU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와, 21세기에 걸맞는 국제적인 대학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포럼참가 학교명단

대원외고	양정고	광주여고	정화여고	여수고	51개교
이화여자외고	오산고	광주제일고	혜화여고	여수여고	교장: 35명
명덕외고	중대부고	서강고	영일외고	화원고	선생: 16명
한영외고	중동고	진흥고	부일외고	제주제일고	학생: 2명
경북고	창문여고	경북고	경남고	제주여고	학부모: 5명
경희고	현대고	경북여고	남성여고	중산외고	
반포고	휘문고	경신고	동래여고	청주외고	
서울고	과천외고	계성고	배정고		
세화고	안양외고	남산여고	부산사대부고		
신일고	부천고	능인고	순천고		
양재고	광주고	대구여고	순천여고		

포럼을 마치고, APU에 대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메시지

◐ 양정고 엄규백 교장

다양한 문화 · 역사 · 종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하나의 캠퍼스에 모여서 아시아 · 태평양 각국의 언어를 서로 배우며,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이해해 가면서, 또 아시아 ·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각 영역의 정치 · 경제 · 문화 등 모든 문제에 관해서 연구 · 학습하는 곳으로서 각 영역에서 활약할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 세화고 김영복 교장

국가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리더를 양성하는 APU의 평화주의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 일 양국의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해서 탐구하며, 또 양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대원외고 이종영 교장

가깝고도 먼 한일 양국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이해와 정신적인 교류를 심화시켜야만 합니다. 세계 속의 아시아를 선도해 나갈 명실상부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끝없는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양외고 박향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과거의 어두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밝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와 사회의 한 분야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뭉쳐나갈 주역이 APU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산고 김용찬 학생

APU에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APU 각국의 학생들과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작게는 대학에서 크게는 세계를 위한 일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 경남고 천성운 학생

APU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구축의 선두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 명덕외고 최영희 선생

20세기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나갈 과도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세계가 하나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하는 사실보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他」로 인식해온 다른문화에 대한 이해가 보다 넓혀가고, 「我」로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적 · 물리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인적 정신적 문화적 교류를 보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협정고교현황】

1999년 7월 31일 현재

지역	학 교 명	추 천 인 원	지역	학 교 명	추 천 인 원	지역	학 교 명	추 천 인 원	지역	학 교 명	추 천 인 원	지역	학 교 명	추 천 인 원
서울	대원외고	5	서울	오산고	2	경기	안양외고	2	부산	경남여고	3	전남	여수고	1
	이화여자외고	3		중대부고	2		부천고	1		남성여고	2		여수여고	1
	명덕외고	3		중동고	2	경남	마산중앙고	1		대연고	3		홍일고	2
	한영외고	3		창문여고	2	대구	대구외고	5		동래여고	3		화원고	3
	경기고	1		현대고	1		경북고	2		배정고	3	제주	제주제일고	2
	경북고	2		휘문고	1		경북여고	2		부산고	3		제주여고	1
	경희고	1	강원	강릉고	2		경신고	2		부산고	3		대기고	3
	반포고	2		춘천고	2		계성고	2		부산대부고	3		오현고	2
	서울고	10	광주	광주제일고	2		남산여고	2	울산	학성고	2	충청	중산외고	2
	세화고	2		광주고	1		능인고	2		현대고	3		한일고	1
	신일고	5		광주여고	2		대구여고	2	인천	서인천고	1	총계	69	154
	양재고	1		서강고	1		정화여고	2	전남	전남외고	2			
	양정고	1		서석고	2		혜화여고	2		목포고	2			
	영동고	3		진흥고	2	부산	부일외고	2		순천고	1			
	예일여고	2	경기	과천외고	3		경남고	3		순천여고	1			

「고교생APEC in 큐슈」 개최!

1999년 3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 · 일 고교생 APEC(Asia Pacific Educative Conference)in 큐슈≫를 개최했습니다. 고교생 APEC이란, 고교생이 주체가 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하는 행사입니다. 고교생 APEC은 작년 11월에 리쓰메이칸대학 교토(기누가사)캠퍼스에서 제1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이제 2회가 됩니다.

금번 발표는 작년에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한 〈제1회 고교생아시아태평양현상논문〉 수상자(한국측 3명, 일본측 3명)가 주축이 되어 발표를 하고, 그 후 會場에 참석하신 분들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고교생APEC의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대구여고 3학년 권미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 ≪은상≫ 부천고 3학년 홍순재 〈우리는 젊기에 더욱 힘차게 미래로 향한다.〉
- ≪우수상≫ 오이타현사에키가쿠죠고 2학년 사카이 아키꼬 〈평화로의 제1보〉
- ≪가작≫ 세화고 3학년 이유진 〈21세기 APEC이 나아갈 방향과 한국의 비전〉
- ≪입선 · 시≫ 오이타현립나카츠상업고 2학년 나카이리 마리꼬 〈인간으로서〉
- 오이타현 벳푸쓰루미가오카고 1학년 나카무라 가나 〈참된 원조〉

▲ 전남 여수여고 강당에서 강승희 학생이 한국사무소 김정현 소장으로부터 상장과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제2회 고교생아시아태평양현상논문 공모결과

전국 협정고교 20개 고교에서 참가

● 대상: 1명	대구여고	2학년	4반	최윤정	국제화시대의 국제교류
● 금상: 1명	중대부고	2학년	9반	소병규	세계 속의 아시아
● 은상: 2명	경북여고	2학년	7반	조한별	국제화사회에서의 우리의 과제
	여수여고	2학년	5반	강승희	국제교류와 우리의 자세
● 동상: 3명	과천외고	3학년	8반	박새암	한국 국제화의 청사진
	광주고	2학년	1반	민병채	인류의 공존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전남외고	1학년	중국어과	고민경	21세기 국제사회의 동향과 그 대응안

APU입학내정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어학연수 실시

99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에 걸쳐서 경희대 수원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제1차 일본어 어학연수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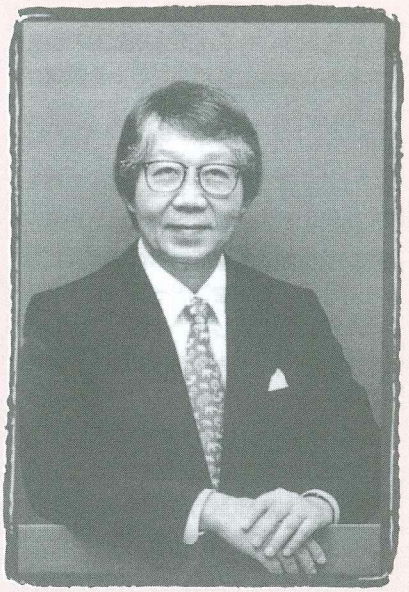
APU입학 내정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4명 입교.

경희대 평생교육원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특별시간을 활용하여, 특히 3주차 특별강연에는 立命館大學 국제관계학부 우내타니(宇根谷 孝子)교수, APU개설사무국 이마무라(今村 正治)과장이 "APU의 생활 및 일본문화"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의 앙케트 조사 결과 아주 유익하였으며 겨울방학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 제1차 일본어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 Tommy Thong-Bee KOH 교수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에 보내는 메시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을 큐슈에 설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50%가 국제 유학생이라는 것은, 그 대학이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더 한층 국제적인 국가로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은 일본의 국제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의 아카데믹 · 어드바이저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 congratulate the Ritsumeikan University for taking the initiative to establish a new Asia Pacific University in Kyusyu Island. The fact that 50% of the students will be non-Japanese will ensure that the University will have an international character. Japan has a leadership role to play in the building of an Asia-Pacific community. In order to play such a role, Japan must become more cosmopolitan and open to the world. The new University can contribute towards the internationalisation of Japan. I am very pleased to be an Academic Adviser to the University.

Professor Tommy T. B. KOH

profile Tommy Thong-Bee KOH

〔프로필〕

현재 싱가포르 외무부의 無任所大使이며, 아시아 · 유럽재단이사장. 「地球會議」(the Earth Council)의 멤버.

1971년부터 74년 싱가포르대학 법학부장을 역임. 1968년부터 71년 싱가포르 상임대표로서 뉴욕의 UN에 파견되고, 동시에 駐캐나다高等弁務官으로 임명됨. 1974년부터 84년 다시 상임대표로 UN에 파견되는 동시에 駐캐나다高等弁務官, 駐멕시코대사도 겸임. 1981년부터 82년 제3회UN해양법회의 의장에 취임. 1984년부터 90년 주미대사를 역임. 1990년부터 92년 UN환경개발회의 준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1993년 8월 및 9월 러시아연방 · 라토비아 · 리토아니아 · 에스토니아에 사절단 인솔을 위하여 UN사무총장으로부터 特命全權公使로 임명됨. 1994년 · 95년 미국 스탠포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객원교수. 1993년부터 95년 지속적 발전에 관한 UN 상급고문에 취임.

Tommy Thong-Bee KOH교수는, 싱가포르대학에서 최고 명예학위(법학)을 취득,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석사, 캠브리지대학 대학원에서 학위(법죄학)를 취득했다. 또 1984년 예일대학으로부터 법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외에, 콜롬비아대학, 스탠포드대학, 조지타운대학, 플래처 법률외교스쿨로부터 각종 상을 받았다.

또, 1971년 公職星章(the Public Service Star), 1979년 公益功績메달(the Meritorious Service Medal), 특별업적훈장(the Distinguished Service Order Award)등을 받았다. 1993년 3월에는 네덜란드 황태자로부터 골덴아크훈장의 上級勳爵士(Commander in the Order of the Golden Ark)에 임명되었고, 일본상공회의소 싱가포르재단(JCCI Singapore Foundation)에서 예술상 및 문화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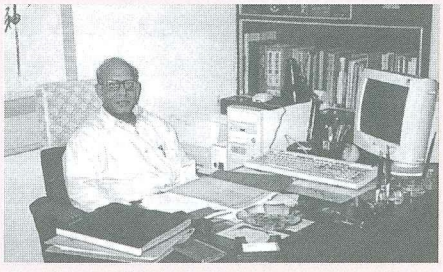
【해외사무소 소식】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태국편】

태국담당그룹은 2월 1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통산 4번째가 됩니다. 이번에 태국의 서부 및 남부를 중심으로 삼대학 Twee부학장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지원과 그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각지에서 명문이라고 알려진 19개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선생과 교감선생, 진로지도선생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6개교에서 11년생(한국의 고2년)을 중심으로 총 1,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PU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는 420명의 학생이 참가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인도편】



Dr. Satya Bhushan Verma
Visiting Professor of Research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
Academic Advisor and Liaison Representative in India,
Planning Division for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Kyoto, Japan
Address:D-3/3585 Vasant Kunj New Delhi-110070, India
Tel:+91-11-6893630 Fax:+91-11-6122270
E-mail:vermasb@vsnl.com

이번, 인도의 현지 활동은 2월 9일부터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므로 고교방문에 대해서는 데리市의 12년 일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만을 골라서 방문했습니다. 어느 학교나 일본의 대학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발송한 자료와 함께, 이번에 APU의 이념 및 교육제도를 직접 설명하여, 데리를 대표하는 명문 공립학교 4개교와 학생추천협정을 체결, 합계 10개교 45명의 추천협정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완성을 앞둔 APU캠퍼스 상량식 거행

공사는 예상대로 진행 중.
캠퍼스의 외관을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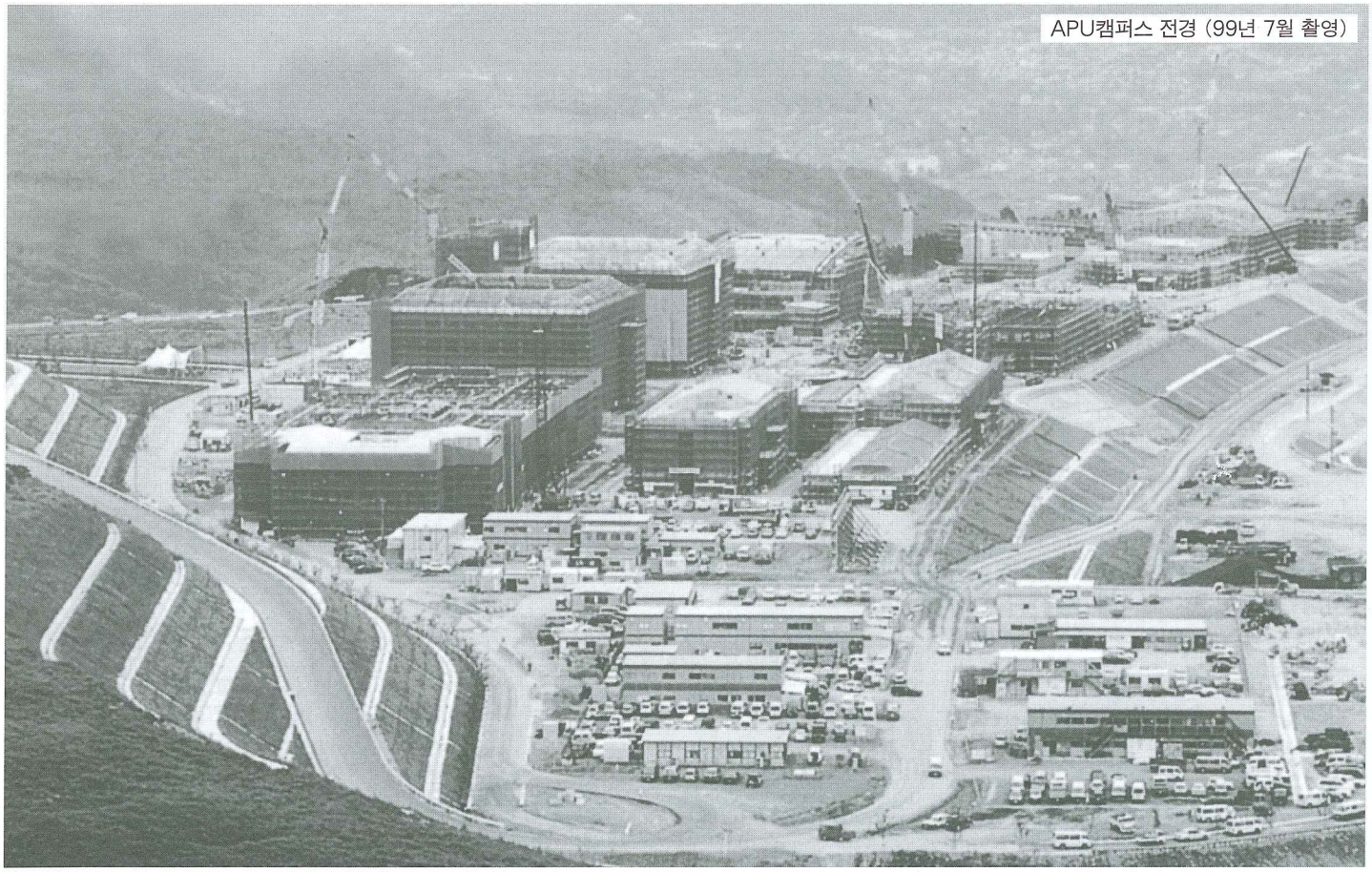
▲ APU캠퍼스 상량식에서 학교법인 立命館의 카와모토 이사장

▲ 상량식광경

97년 10월에 조성하기 시작한 APU캠퍼스는 이제 막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9년 6월말 시점에서 건물은 약 40%가 완성되었으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9년 7월 10일(토) APU캠퍼스에서는 지금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확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상량식을 거행했습니다. 식장에는 학교법인 리쓰메이칸에서 카와모토 이사장, 사카모토 부총장(APU학장 예정자), 그리고 히라마쓰 오이타현지사, 이노우에 벳푸시장, 설계 · 시공자대표 및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분 모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10월 하순에는 각 건물의 외관을 덮고 있는 발판도 철거될 예정이며, 빠른 시일 안에 APU캠퍼스의 전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정으로는 12월말에 건물을 인수받게 되며, 그 후에는 각종 설비가 반입됩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 여러분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APU캠퍼스 전경 (99년 7월 촬영)

"내년 설립 亞太대학은
汎아시아 인재양성 목적"

한국은 나가타 일본 立命館대학 총장

내년 4월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市)에 국제종합대학 '아시아태평양 대학'을 설립하는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의 본모습의 나가타 총장이 18일 내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21세기는 서구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동양에 접목시키는 방식에서 탈피, 범 아시아권 인재를 아시아 자체에서 양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900년 개교한 리쓰메이칸 대학이 새로운 인재양성 기관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보다 융통적 사고방식을 갖고도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자는 뜻이라는 것. 나가타총장은 "이런 의미에서 아-태 대학은 '사립(私立)'이 아닌 '아시아-태평양립(立)' 대학"이라고 말했다.

50개국 출신 유학생과 일본학생 400명씩 모두 800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영어와 일어로 강의를 듣는다. 무료 주택정책을 통해 선발하는 외국학생에게는 학비 면제와 생활비 보조 등 파격적인 장학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학과 협정을 맺었거나 진행중인 학교에서 60~100명의 학생이 선발될 예정이다.

나가타 총장은 "졸업생들은 앞으로 각종 국제기구나 국제무역 상사 등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崔源錫기자 yuvhan2@chosun.com
/사진=崔澤湖기자 choish@chosun.com

(99. 5. 19 조선일보 25면 게재)

立命館대학 나가타(長田 豊臣)총장 내한 기자회견

99년 5월 18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立命館대학 나가타(長田 豊臣)총장은 내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나가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에 개교하는 국제적 종합대학인 "立命館 아시아태평양대학(APU)"을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서 "21세기는 서구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동양에 접목시키는 방식에서 탈피, 범 아시아권 인재를 아시아 자체에서 양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立命館대학은 내년이면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서 APU를 설립하는 만큼,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도 국제화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자는 뜻에서 "APU는 사립이 아닌 아시아립 대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카모토 APU학장예정자는 서울대 이기준 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카모토 APU학장예정자 서울대 이기준 총장 예방

99년 7월 6일(화) 오후 사카모토(坂本和一)APU학장예정자는 이기준 서울대 총장을 예방했습니다. 사카모토 학장예정자는 이 자리에서 리쓰메이칸대학과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 대학에서의 영어교육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체결한 협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상호협력을 피력했습니다.

한국학생으로부터 ACCES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개학예정인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개설사무국에서는, APU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APU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심을 갖고, APU의 개학을 앞두고 전개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한 APU에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자신들이 직접 준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온 것으로, 현재 약 12,0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에서의 등록도 시작되었습니다.

APU메이트 등록은 편지・엽서・전화・E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할 경우에는 APU의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APU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유학생 입학희망자도 참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소 : 우 603-8577
京都市北歐等待院北町56-1
學校法人 立命館
立命館아시아태평양대학 개설사무국
홈 페 이 지 : http://www.apu.ritsumei.ac.jp/
전자메일과 전화 : 국외학생의 경우 ml-apu4u@ml.ritsumei.ac.jp
TEL. +82-75-465-8371
국내학생의 경우 ml-info-apu@ml.ritsumei.ac.jp
TEL. 075-465-7860

우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8 동일B/D 802호
學校法人 立命館
立命館아시아태평양대학 한국사무소
Tel 02-3481-8287/8　Fax 02-3481-8280
E-메일:apukorea@chollian.net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5-8
동일빌딩 802호
立命館 아시아 태평양대학 한국사무소
Tel/ 82-2-3481-8287/8288
Fax/ 82-2-3481-8280
E-mail:apukorea@chollian.net

〒603-8577
日本國京都府京都市北區等特院北町56-1
學校法人立命館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學開設事務局國際課
Tel / 075-465-8370 +81-75-465-8370
Fax/ 075-465-8371 +81-75-465-8371
URL http://www.ritsumei.ac.jp/kic/a31
E-mail:ritsapu@ritsumei.ac.jp